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ne 2025 Issue | Vol. 38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불안, 외국인 투자 전망 악화 — page 1-2
- 관광산업, 필리핀 GDP에 5.9조 페소 기여 전망 — page 2-3
- 필리핀 IT-BPM 산업, 올해 세계 산업 성장을 앞지를 전망 — page 4
- 제19대 의회, 임금 인상 법안 통과 실패 — page 4-5
- 아시아의 물가 완화, 금리 인하 및 미국과의 정책 차별화 길 열어 — page 6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필리핀, 더 이상 ‘더러운 돈’ 허브 아니다” — page 7
- 금융회사, 사기 손실에 대한 책임질 수도 — page 8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불안, 외국인 투자 전망 악화’

June 11,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추세로 인해 향후 수개월 동안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전망했다. .

화요일,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5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 30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4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니언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벤 카를로 오. 아순시온(Ruben Carlo O. Asuncion)은 **《비즈니스미러》**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의 부진,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기업들이 해외로의 확장 계획을 미루거나 재검토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순시온은 “2025년 후반에는 일부 안정화가 기대되지만, 글로벌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FDI 흐름은 여전히 억제된 상태로 남을 수 있다”며, “현재의 투자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아순시온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경제학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국제기구들도 이와 유사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정책 변화는 공급망 재조정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기업들이 국경을 넘는 투자를 고려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과 관련해, 기업들이 공급망 붕괴와 같은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영향이 덜한 지역이나 자국 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자국 회귀 투자(reshoring)가 FDI 유입을 이미 앞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역내 국가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GDP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인프라 부족과 정책 일관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위축은 글로벌 투자 흐름의 전반적인 재조정의 일부입니다.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FDI 전망은 지정학, 경제, 구조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라고 아순시온은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정책 조율과 정책의 명확성(이것이 핵심 단어입니다)**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 한, 2025년 내내 조심스러운 투자 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2]

‘지정학 리스크와 글로벌 불안, 외국인 투자 전망 악화’

[Cont. from page 1]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교의 경제학자 레오나르도 란조나 주니어(Leonardo Lanzona Jr.)는 올해 1분기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부진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란조나는 정부가 필리핀의 경제성장이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라 FDI도 함께 증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과 FDI 간 괴리에 대해 설명하며, “필리핀의 GDP 성장률이 빠르게 보이는 이유는 기저(base)가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높은 GDP 성장률은 일반적으로 FDI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란조나는 《비즈니스미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성장이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높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경제의 기초가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FDI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높은 성장률은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약 정말로 우리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 외부 요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들이 우리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FDI가 낮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항상 문제가 있어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란조나는 또한, 실제로 필리핀의 경제성장이 송금(remittances)과 소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면 FDI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특히 농업과 제조업 부문에서의 노동 등 국내 자원의 부가가치 감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5년 3월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4억 9,800만 달러로, 2024년 3월의 6억 8,900만 달러 대비 27.8% 감소했다고 밝혔다.

BSP는 이번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비거주자의 부채상품 투자 순유입 감소를 들었다. 이 항목은 2024년 3월 4억 8,100만 달러에서 2025년 3월 3억 2,900만 달러로 31.6% 감소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비거주자의 지분자본 투자는 1억 4,100만 달러에서 1억 200만 달러로 27.4% 감소, 이익 재투자는 6,700만 달러에서 6,600만 달러로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월의 지분자본 투자는 주로 싱가포르, 일본,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로부터 유입되었으며, 이 자금은 부동산,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행정 및 지원 서비스업 분야에 주로 투입되었다.

Image credits: BM Graphics: Ed Davad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6/11/geopolitics-global-woes-mar-fdi-outlook/>

관광산업, 필리핀 GDP에 5.9조 페소 기여 전망

June 11,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Tourists visit the colorful houses in Lucban, Quezon during Pahiyas Festival. — PHILIPPINE STAR/RYAN BALDEMOR

세계여행관광협회의(WTTC)에 따르면, 올해 필리핀의 여행 및 관광 산업이 경제에 5조 9,000억 페소의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WTTC는 자사의 **2025년 경제 영향 보고서(Economic Impact Research)**를 인용해 “이러한 사상 최고 기록은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 이상(21%)을 차지하며, 여행 및 관광 산업이 필리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경제 관리 당국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간 6~8%의 GDP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TC는 또한 올해 말까지 여행 및 관광 산업이 1,170만 명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필리핀 전체 고용의 23.8%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3]

관광산업, 필리핀 GDP에 5.9조 페소 기여 전망*[Cont. from page 2]*

지난해, 여행 및 관광 산업은 필리핀 GDP에 5조 3,000억 페소를 기여했으며, 1,1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예측이 실현될 경우, 이는 GDP 기여도에서 11.3%, 고용 측면에서는 4.5% 증가한 수치다.

WTTC는 올해 여행 및 관광 산업의 기여도가 2019년(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13.5%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관광객 소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7,092억 페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최고치 대비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국내 관광객 소비는 4.1조 페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최고치보다 9.3% 증가한 것입니다.”라고 WTTC는 밝혔다.

지난해 국내 관광객 소비는 3.6조 페소, 국제 관광객 소비는 6,448억 페소를 기록했다.

WTTC의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국제 관광 소비는 약 10%, 국내 관광 소비는 13.9% 증가하게 된다.

WTTC의 줄리아 심프슨 회장 겸 CEO는 “필리핀은 여행 및 관광 산업이 명확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러한 성과는 필리핀의 놀라운 매력, 관광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정책, 그리고 국민과 민간 부문의 역동성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WTTC는 2035년까지 여행 및 관광 산업이 필리핀 경제에 9.2조 페소를 기여하고, 이는 GDP의 19.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5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여 총 1,410만 명 고용 달성을 예측했다.

“항공 연결성 강화, 인프라 투자, 관광지 회복력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필리핀의 여행 및 관광 산업은 단순한 성장 수준을 넘어 국가 경제를 변혁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WTTC는 밝혔다.

이어 “규제 명확화, 인력 개발에 대한 장기적 투자,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로서 필리핀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WTTC는 덧붙였다.

한편, 리잘 상업은행(RCBC)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는 관광 산업이 필리핀의 ‘손쉬운 성장 동력(low-hanging fruit)’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Viber 메시지를 통해 “필리핀은 외국인 관광객 수에서 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아직 크게 뒤처져 있다. 이들 국가는 필리핀보다 3~5배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어, 관광은 주요한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 산업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비즈니스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항, 항만,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 인프라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콜리어스 리서치의 조이 로이 본독(Research Director Joey Roi Bondoc)는 올해 정부의 관광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2024년 수치는 이미 정부 목표에 못 미쳤고, 이는 한국의 경제 위기 이전의 수치였다. 지금은 중국 관광객도 없고, 한국발 관광객도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광부(DoT)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필리핀의 방문객 수는 595만 명으로, 목표치였던 77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본독은 “관광부의 전략 방향은 옳다”고 하며, “인도인을 유치하고, 필리핀에 대해 도착 비자 또는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는 정책은 좋은 방향이지만, 인프라, 치안, 비용 부담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6/11/678401/tourism-projected-to-contribute-p5-9t-to-philippine-gdp/>

필리핀 IT-BPM 산업, 올해 세계 산업 성장률 앞지를 전망

June 11,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산업은 올해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글로벌 산업 성장률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리핀정보기술비즈니스프로세스협회(IBPAP)의 잭 마드리드(Jack Madrid) 회장은 기자들에게, 올해 필리핀 IT-BPM 업계의 매출과 인력 수가 글로벌 산업 평균 성장률인 3%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마드리드는 필리핀 IT-BPM 산업이 올해 400억 달러(약 5조9천억 페소)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작년 380억 달러 대비 5%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IT-BPM 업계 종사자 수가 2024년 182만 명에서 2025년에는 190만 명으로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수치는 필리핀이 이 산업의 성장에서 다시 한 번 선도적인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올해의 매출 및 고용 목표치는 최근 산업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재검토되었다고 덧붙였다.

IBPAP(필리핀정보기술비즈니스프로세스협회)에 따르면, 디지털 고객 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인공지능(AI) 및 분석 기술의 채택 확대가 올해 업계 실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인도에서 다른 국가로의 아웃소싱 다변화와 기존 글로벌 역량 센터(Global Capability Centers, GCC)의 확장 및 신규 투자 증가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BPAP는 필리핀 인력이 미래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IBPAP는 기업 기반 교육 및 훈련(EBET) 프레임워크 법안과 관련된 재교육(upskilling)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협업 중이다.

IBPAP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셀레스테 일라간(Celeste Ilagan)은, 정보통신기술부(DICT)로부터 2억4천만 페소, 기술교육기술개발청(TESDA)으로부터 5억 페소의 재교육 예산을 올해 안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IBPAP는 EBET의 전국 시행을 위한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TESDA 및 DICT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인재 개발, 혁신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부(DTI)와도 협력하고 있다. 이 협력은 필리핀 품질상(Philippine Quality Award)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잭 마드리드 IBPAP 회장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야말로 2028년까지 포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6/11/2449610/philippines-it-bpm-seen-outpacing-global-industry-growth-year>

제19대 의회, 임금 인상 법안 통과 실패

June 12, 2025 | Jovee Marie N. de la Cruz | BusinessMirror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제19대 필리핀 의회가 수요일 회기를 종료하면서, 서로 다른 임금 인상안 간의 교착 상태로 인해 일일 임금 인상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못했다.

하원의 대변인 프린세스 아반테(Princess Abante)는 상원이 입법 임금 인상안에 대한 양원 합동회의(bicameral conference committee) 소집을 거부한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법안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이자 회기 마지막 날 법안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반테 대변인은 목요일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실을 포장하지 맙시다—상원이 하루 200페소 임금 인상 법안을 무산시켰습니다. 어젯밤은 제19대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였습니다. 합동회의도 없고, 타협도 없고, 결국 임금 인상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상원이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100페소 인상안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길 원했습니다. 왜죠? 왜 상원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외면하는 걸까요?” [Cont. page 5]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siness Proces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BPAP) president Jack Madrid told reporters that the sector sees its revenues and employee count growing faster than the global industry growth of three percent this year.

STAR / File

제19대 의회, 임금 인상 법안 통과 실패

[Cont. from page 4]

아반테 대변인은 하원의 양원협상위원회(bicameral conferees)가 성실하게 협상하고 법안의 서로 다른 버전을 조율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었다고 밝히며, 상원의 무대응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 하원 대표들은 당황하고 좌절했습니다. 이들은 P200 임금 인상을 옹호하고, 노동자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원은 이미 P200의 일일 임금 인상을 담은 법안을 3차 심의까지 통과시켰으며, 회기 종료 훨씬 전에 양원 협상 대표단을 지정한 상태였다. 반면, 상원은 회기 종료 전날에야 대표단을 지정했으며, 협상에는 불참하면서, 사실상 P100 인상안에 대해 '받거나 말거나'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아반테 대변인은 또한 하원 버전이 영세 소상공인(MSMEs)에 대한 보호 조항과 예외 조항을 포함하여 노동자 친화적이면서도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설계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브리엘라(Gabriela) 당선 비례대표 아를렌 브로사스(Arlene Brosas) 의원은 상원이 자신들의 버전에 고수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양원 협상 진행이 정체되었다고 지적했다.

브로사스 의원은 “상원은 자신들의 임금 인상 버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원 협의 절차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입법을 통한 임금 인상이라는 오랜 요구가 위협에 처했습니다. 오늘이 양원보고서(bicam report)를 승인할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월요일 상원에서 양원 회의를 기대하며 활발히 로비를 벌였으나, 상원의 반응은 매우 미온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브로사스 의원은 “우리는 상원과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까? 교착 상태를 초래한 주체는 누구입니까?”라고 되물으며, P100~P200의 인상안조차도 생계임금에는 한참 못 미치는데, 이조차도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크바얀(Akbayan) 당선 비례대표 퍼시 센다냐(Perci Cendaña) 의원은 상원과 입법·행정 발전자문위원회(LEDAC)가 P200 일괄 임금 인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며, 양원 모두가 자체 법안 버전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통합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센다냐 의원은 상원이 하원안을 채택하여 법안 통과를 앞당길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입법·행정 발전자문위원회(LEDAC)**가 임금 인상 법안을 긴급 사안으로 인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만약 긴급 법안으로 지정되었다면 의회 절차가 훨씬 신속히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다냐 의원은 “LEDAC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선도해야 할 기구입니다. 그러나 P200 임금 인상을 추진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좌절에도 불구하고 아크바얀(Akbayan) 당은 제20대 의회에서 P200 임금 인상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다짐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리살(Rizal) 지역구의 피델 노그랄레스(Fidel Nograles) 하원 노동고용위원회 위원장은 하원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법안을 3차 심의까지 통과시켰고, 양원 협상위원 명단을 사전에 제출했으며, 상원과의 양원 협상에 항상 임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상원은 화요일에서야 협상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원래도 짧았던 양원 협상과 비준 절차의 시간을 더욱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노그랄레스 의원은 “역사는 우리가 이 중요한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회기 종료 전 대통령 책상에 오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들에게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6/12/19th-congress-fails-to-approve-wage-hike-bill/>

아시아의 물가 완화, 금리 인하 및 미국과의 정책 차별화 길 열어

June 13, 2025 | BusinessWorld

식료품과 연료 가격 하락, 그리고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강세로 인해 아시아 전역에서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 중앙은행장들은 무역 의존적인 자국 경제를 지원할 여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경제 전망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적 여유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미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를 발표한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라 홀딩스(Nomura Holdings, Inc.)의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한 역내 국가들의 4월 소비자물가는 단순 평균 기준 약 1.5% 상승에 그쳐, 2021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한 달 동안, 호주중앙은행(RBA)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전망이, 일본은행(BOJ)에

대해서는 덜 매파적인 정책 방향이 선반영되었다. 또한 단기금리선물시장(OIS)은 향후 3개월 동안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에서도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이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인도준비은행은 지난주 예상보다 큰 50bp(기준금리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예상 외로 비둘기파적(완화적) 입장을 취했다. 두 경우 모두 당국자들은 수요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관세가 미칠 잠재적 영향을 지목했다.

KB증권 글로벌마켓본부장인 피터 김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 각국 경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무역협정과 중앙은행들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수요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로, 4월의 2.3%보다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중국은 여전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5월까지 3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하락 폭은 거의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인 일본에서는, 일본은행(BOJ)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하면서 엔화 약세를 부추겼다.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보았지만, 경기 지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다음 금리 인상 시점이 더 멀어질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한편, 한국에서는 예상 밖의 물가 상승률 둔화가 통화 완화 가능성을 높였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한국은행이 8월과 11월 각각 25bp(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아시아 대부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아세안(ASEAN) 담당 이코노미스트 타마라 헨더슨은 “(기준에 중립 수준으로 되돌리려 했던 통화 정책이) 이제는 오히려 완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느냐이다.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헨더슨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높은 관세가 전 세계 상품 수요를 위축시키면서 싱가포르와 태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블룸버그가 실시한 이코노미스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이후부터 원유 가격 하락과 관세 부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되고 있다.

미국 달러의 전반적인 약세가 지속된다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때 환율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복잡함을 야기할 수 있다.

노무라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소날 바르마는 “과거 경기순환기에는 수출이 약세일 때 아시아의 통화 약세가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완충 역할이 기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올해 엔화, 대만 달러, 원화의 추가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

통화 측면에서는 미국 연준(Fed)의 정책 방향도 중요한 변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접근을 고수하며, 관세가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 및 정책 전망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 아시아 각국은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고율 “상호주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는 협상 기간을 주기 위해 관세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로빈 브룩스는 “코로나19와는 달리, 관세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충격은 아니다”라며, “미국 수요를 대체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순수수출국들에서는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흐름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bloomberg/2025/06/13/678930/asias-easing-prices-pave-path-for-rate-cuts-and-us-divergence/>



A fruit and vegetable stall at a wet market in Taguig City, the Philippines, on Sept. 4, 2024. — GERIC CRUZ/BLOOMBERG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필리핀, 더 이상 ‘더러운 돈’ 허브 아니다”

June 12,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PHL OFF THE LIST: NO LONGER A 'DIRTY MONEY' HUB

TIMELINE

- ✓ **Feb 2025:** PHL exits FATF grey list after nearly 4 years
- ✓ **June 2025:** European Commission removes PHL from AML/CFT risk list

→WHAT IS AML/CFT?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 a global regulatory standard to protect financial systems.

PHL'S PROGRESS IN AML/CFT

- Addressed technical deficiencies
- Strengthened effectiveness of anti-money laundering & anti-terror financing rules
- Compliance with FATF action plan

→NEXT STEP:
EU Parliament to confirm EC decision within 1–2 months under AMLD IV

WHO'S IN, WHO'S OUT

COUNTRIES REMOVED FROM EC DIRTY MONEY LIST ✓

- Philippines
- Barbados
- Jamaica
- Senegal
- Uganda

COUNTRIES ADDED TO THE DIRTY MONEY LIST ✗

- Algeria
- Lebanon
- Angola
- Monaco
- Côte d'Ivoire
- Namibia
- Kenya
- Nepal
- Laos
- Venezuela

→SEA Countries Still Listed:
Laos, Myanmar, Vietnam

*"A vote of confidence."
—Remolona on PHL's FATF grey list exit*

BM Graphics: Ed Dava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측면에서 ‘고위험 국가 목록’에서 필리핀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필리핀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계의 기술적 결함을 이미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외에도 이번에 ‘더러운 돈’ 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는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세네갈, 우간다가 포함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들 국가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체계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금융활동특별조치기구(FATF)가 지적한 전략적 결함에 대한 이행 계획에 따라 기술적 결함을 해결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어 “집행위원회는 이들 국가가 AML/CFT 체계에서 지적된 전략적 결함을 해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들을 [EU] 위임규정 부속서 I항의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이 목록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 중 남아 있는 국가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3개국뿐이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국가들을 ‘더러운 돈’ 리스트에 추가하기도 했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는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케냐, 라오스, 레바논, 모나코, 나미비아, 네팔, 베네수엘라 등이다.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의회가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라고 방크센트랄은행필리피나스(BSP, 필리핀 중앙은행)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 총재는 수요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제4차 자금세탁방지 지침(AMLD IV) 제9조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고위험 제3국 목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며, 목록 갱신은 위임규정의 법적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위임규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1개월(최대 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발효된다.

2025년 2월, 필리핀은 약 4년 만에 FATF의 ‘그레이 리스트’(감시 대상국 목록)에서 제외됐다. 파리 소재의 국제 금융 감시기구인 FATF는 금요일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핀이 합의된 기한 내에 이행 계획을 완료했다며 리스트 제외를 발표했다.

레몰로나 총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필리핀의 그레이 리스트 탈피는 “우리 국가에 대한 신뢰의 표시”라고 밝혔다.

Image credits: BM Graphics: Ed Davad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6/12/phl-no-longer-dirty-money-hub-says-european-commission/>

금융회사, 사기 손실에 대한 책임질 수도

June 13, 2025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뱅크센트랄은행필리피나스(BSP, 필리핀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들은 사기(fraud)로 인해 고객이 입은 재정적 손실에 대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대응 체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The Manila Times®

엘모어 카폴레 BSP 부총재는, 은행 및 기타 BSP 감독 금융기관(BSFI)은 사기 탐지 및 방지 시스템을 적절하게 구축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민사적 책임을 직접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기 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라고 카폴레 부총재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고객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고, 해당 은행의 시스템이 부적절하거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금융기관이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즉, 사기범을 쫓는 대신 해당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개입을 의무화한 「금융계좌 사기방지법(Afasa)」은 작년 7월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불법 활동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는 머니 물(money mule) 활동, 사회공학작 사기(social engineering scams), 가명 사용, 도용된 신원으로 계좌 개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Afasa에 따라,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 표시(flagging),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사기 방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여기에는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예컨대 매우 빠른 빈도로 다수의 유사한 거래가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기 행위로 의심되는 징후를 탐지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종종 봇(bot), 악성코드, 제로데이 취약점, 기타 고도화된 해킹 수단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 특히 계좌 보유자 본인이 신고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금이 사기 계좌로 넘어가는 것을 사전에 막아 고객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카폴레 부총재는 “예를 들어 당신이 사기 피해자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지오타킹(위치 추적)이 없어, 동시에 미국과 필리핀에 있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거래가 발생했다면?”이라며, “지오타킹 시스템이 있었다면 은행이 이상 징후를 감지했을 텐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은행이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법은 복잡한 전자 금융 상품을 제공하거나 대규모 디지털 거래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카폴레 부총재는 거래 및 이벤트 추적 시스템(Transaction and Event Tracking Information Systems)과 같은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디지털 경제에서 활동하는 기관이라면 이러한 투자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BSP 기술리스크 및 혁신감독부의 마리크리스 살루드 부국장은 주요 상업은행들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BSP는 감독 금융기관(BSFI)들에게 시스템 전환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6/13/business/top-business/financial-firms-may-be-liable-for-fraud-losse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Our Areas of Expertise



PROPERTY INSURANCE 재물

Industrial All Risks 재산종합 | Fire Broad Named Perils 화재 |
Commercial All Risks 영업종합 | Machinery Breakdown 기계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종합 |
Equipment Floater 장비



MOTOR 자동차

CTPL 책임보험 | Comprehensive 종합보험 | Fleet Policy 그룹증권



PEOPLE SOLUTIONS 직원복지

Life 생명 | HMO 의료실비 보험 | Clinic Management 의료관리 |
Key Person Insurance 경영자보험



MARINE INSURANCE 적하/물류

Single Shipment 수입/수출 일회운송 | Marine Open 수입/수출 연간보험 |
Inland / Inter-island 내륙운송/섬간 이동 운송 | Stock Throughput 물류종합



ACCIDENT & TRAVEL 상해 & 여행자

Personal Accident (Individual & Group), Travel (Individual & Group)



LIABILITY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 |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물류업자배상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 | Directors and Officers 임원배상



OTHERS 기타보험

Bonds 보증보험 | MSPR 현금도난 | Fidelity 신원보증 | Trade Credit 신용보험 |
Political and Terrorism 정치적위험 및 테러 | Cyber Insurance 사이버보험

We Answer To No One But Our Client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29th and 36th Floors, Rufino Pacific Tower, 6784 Ayala Avenue corner
V.A. Rufino Street, Makati City, Philippines 1200

+632 8811 0388 info.philippines@lockton.com

For Korean accounts, you may contact Hye-Won "Eunice" Park 박혜원 팀장
eunice.park@lockton.com +63 917 854 7930

